‘봉사=수행’인 수자타 후예들



울산 해남사 무료급식소 수자타의 집은… 1997년 1월 문을 열었다. 현재 300여 명의 독거어르신들에게 점심 공양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행단체 및 소상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울산 대표 봉사현장이다. 개원 당시 주지였던 범해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주지를 역임한 성본, 만초, 남현 스님의 노력으로 발전을 거듭했으며 현 주지 혜원 스님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수자타의 집’에서 봉사중인 해남사 보리회 회원들이 공양을 준비하는 모습.

道伴의 향기 울산 해남사 무료급식소 ‘수자타의 집’

무료급식소 ‘수자타의 집’

1997년 1월 범해 스님이 개소

밤새 식사 못한 어르신 위해

점심 공양 오전 11시부터 배식

매주 월~토, 매일 300여 명 이용

2011년 리모델링 확장 이전

25개 단체 당번제로 참여

현판 월하 스님 육필

울산=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어느 날, 수자타는 꿈을 꾼다. “수자타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께 최초의 공양을 올려라” 토지신의 목소리를 듣고 잠을 깬 수자타는 곧바로 소젖을 짜서 정성스럽게 죽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을 만난다. 수자타는 고타마 싯달타에게 유미죽 한 그릇을 올린다. 6년간의 처절한 고행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있던 싯달타였다. 고행이 깨달음의 방편이 아님을 깨달은 싯달타는 수자타가 올린 유미죽을 먹고 죽음 직전에서 살아난다. 부처님의 삶이나 오늘의 불자 모두에게 수자타의 유미죽은 특별한 공양이 아닐 수 없다. 공양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실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주고받는 모든 공양이 수자타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큰 공덕일 것이다. 그 옛날 수자타의 이름으로 공양공덕을 실천하는 곳이 있다. 울산 해남사 무료급식소 ‘수자타의 집’이다. 많은 봉사자들이 수자타의 이름으로 공양공덕을 실천하고 있다. 그들에게 대중은 모두 부처님이다. 이 시대의 수자타들을 만나본다.

봉사현장은 설법의 현장…어르신들이 부처님

‘수자타의 집’으로 가는 길에는 촉촉하게 비가 내렸다. 수자타의 집으로 들어서자 많은 수자타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갓 지은 밥에서는 모락모락 김이 오르고, 커다란 냄비에서는 보글보글 황태국이 끓고 있다. 여기저기서 맛있는 반찬 냄새가 피어오르고, 봉사자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하다.

잠시 후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들어왔다.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앉자 봉사자들은 배식을 시작했다. 따뜻한 공양을 차례로 전달하자 차가운 빗길을 지나온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진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 점심이라 하기엔 다소 이른 시간이다. 기자의 눈치를 읽었는지 한 봉사자가 “아침을 못드시고 오시는 분이 많다”며 기자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그랬다. 밤새 굶고 오는 어르신들이 많아 배식 시간도 일반 점심식사 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시작하고, 음식도 소화하기 편한 것들로 준비한다. 건강을 생각해 싱겁게 간을 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배가 고픈 것을 넘어 허기진 어르신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은 수자타의 마음이다.

해남사 무료급식소 ‘수자타의 집’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에 배식을 시작한다. 매일 300여 명이 식사를 하는 곳으로 지역 내 독거어르신들이 주로 찾는다. ‘수자타의 집’은 1997년 1월에 문을 열었다. 당시 울산 해남사 주지였던 범해 스님(현 중앙종회의장)의 발원으로 시작됐다. 처음에는 해남사 앞에 위치한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다. 17평 작은 시설에 주방기구와 탁자, 의자가 놓였고 5명의 봉사자들이 의기투합해 어르신들의 한 끼를 해결해야 했다. 이후 2011년 8월, 해남사 맞은편에 위치한 가게를 리모델링해 확장 이전했다. 주방 공간도 좀 더 넓어지고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들은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공간을 옮기고 난 뒤, 장시간 줄을 서는 모습이 사라져 무엇보다 기쁘다고 했다. 지금은 수자타의 집 앞에 새롭게 만든 부스도 눈에 띄었다. 더울 땐 햇빛을 가리고 비가 올 때 비를 가리는 쉼터로 제작됐다. 시설이 좀 더 좋아질 때마다 봉사자들의 얼굴도 덩달아 밝아졌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시설이 더해지면서 봉사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그로인해 ‘수자타의 집’은 울산지역 사찰 신행단체들의 봉사 기지로 자리 잡은 것이다. 신행단체 뿐 아니라 이웃종교 및 기업들의 나눔터로도 확장됐다. 현재 해남사 봉사팀 보리회 뿐 아니라 적십자 조은 봉사단을 비롯한 24개 팀이 매일 당번제로 봉사를 진행하고, 대영아스콘 사업, 울산나눔회, (사)한국수소사회봉사단 등 기업체의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역 내 구암문구, 다아라식육점, 울산 숯불갈비, 성안 황토방 등 작은 가게들도 나서서 식자재를 후원한다. 울산을 대표하는 봉사 일번지다.

하지만 ‘수자타의 집’의 가장 큰 의미는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봉사자들은 “어르신이 부처님이다”고 입을 모았고, 단순히 자신의 상을 높이는 봉사에 그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의미라고 이야기했다. “봉사를 하면 할수록 어르신들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된다”고 했다. 특히 봉사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해남사 불자들은 신행학교에서 기초교리를 배운 후 배움을 실천하기 위해 수자타의 집을 찾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최은희(60 · 묘주향) 봉사자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힘이다”며 “라디오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각인이 됐다. 실천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매일 알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걸으면 변하는 것들

B5
문화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절집의 어떤 하루’ 展

B6
학술 · 문화재
주목! 학술서 〈한국불교사 궁구〉